

클래식·합창·발레...가을밤 '秋憶 만들기'



바리톤 김동규



광주시립합창단



발레리노 윤전열

광주 시립 예술단들 다채로운 공연 준비

광주시립예술단들이 가을을 맞아 다채로운 공연들을 준비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가족음악회 팝스 콘서트'를 연다. 2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최선용(리니아피스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씨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클래식에 대한 부담을 줄인 친숙한 레퍼토리로 관객들을 만난다. 정통 클래식 음악부터 뮤지컬 넘버, 팝송, 가요, 동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곡은 글린카의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이다. 이어 앤더슨의 '니팔수의 휴일'와 '달리일라' '러브 스토리' 등 팝송 메들리를 연주한다. 또 광

교향악단, 22일 '가족음악회 팝스 콘서트' 바리톤 김동규 출연 합창단 '...합창 명곡으로의 초대'·발레단 '차이코프스키...발레'

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꽃밭에서', '종이접기' 등 동요 메들리를 들려준다.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바리톤 김동규의 무대도 펼쳐진다. 그는 비제의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라리의 '그라나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들려주며 뮤지컬 가수 리원과 함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All I ask of you'를 선사한다. 리원은 드라마 '명성황후' 중 '나 가거든', '겨울왕국' 주제가 'Let it go'를 들려준다. 피날레 곡은 '아리랑 판타지'다. 티켓가격 3만원~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415-5103. 광주시립합창단은 같은 날인 22일 오후 7시 30분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공

연을 갖는다. '가을밤에 듣는 합창 명곡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임한귀씨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다. 레퍼토리는 라흐마니노프의 '기뻐하소서 마리아님', 브람스의 '비가', 슈베르트의 '밤', 사무엘 바버의 '아뉴스 데이', 김기영의 '가을의 서정', 흑인 영가 '성자들의 행진' 등이다. 광주시립발레단은 '차이코프스키, 그가 사랑한 발레'를 공연한다. 25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러시아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와 고전 발레의 거장 마리우스 프티파가 함께 만들어 낸 발레 작품은 170년 동안 전 세계 발레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로 불리는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 하이라이트 장면을 한번에 만날 수 있다. 여기에 광주 출신으로 전 국립발레단에서 주역으로 활동했던 발레리노 윤전열이 무대를 빛낸다. 윤씨는 케이블 TV '댄싱 9' 2, 3 시즌에서 연속 우승했으며 박효신 등이 출연한 뮤지컬 '팬텀'에서 발레리나 김주원과 함께 공연하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백조의 호수'의 지그 프리트 왕자 역을 맡았으며 '호두까기인형'에서는 신승현씨와 함께 2인무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순주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이 해설을 맡는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 문의 062-522-871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투리에 담은 위대한 모정 '엄마의 강'

극단 '예인방' 23·24일
나주문화예술회관 공연

추석을 앞두고 가족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연극 작품이 공연된다. 나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극단 '예인방'이 연극 '엄마의 강'을 무대에 올린다. 23일 오후 7시, 24일 오후 3시 30분~7시 나주문화예술회관. '1980~90년대 나주 영산강 선창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엄마의 강'은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절박한 전라도 사투리에 담아냈다. 작품은 자식의 허물을 안고 죽을까 지 마다않는 위대한 모정은 시대를 넘

어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이야기한다. 고구려 대학교 김성진 교수가 희곡을 썼으며 송수영씨가 연출을 맡았다. '예인방'의 작품에서 주역을 맡아온 임은희씨가 엄마로 분해 애절한 연기를 보여주며 백상예술상 연극상, 동아연극상 등을 수상한 이승호씨를 비롯해 김영, 이현기씨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의 작곡자인 나주 출신 안성현 선생의 음악이 테마음악으로 깔리며 남진의 '님과 함께', 메밀묵 파는 소리, 괴종시계 등 추억을 자극하는 소품과 음악이 함께 한다. 문의 1588-60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홍콩 예술발전위와 교류협정

광주문화재단이 홍콩 예술발전위원회와 해외 교류사업에 위해 손을 맞잡는다.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서영진 문화재단 대표이사 21일 홍콩예술발전위원회 원섭 처우(Wimsome Chow) 대표와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협정에 따라 기관 대표자 간 상호 방문교류 및 예술인 간 인적교류를 추진하게 된다. 광주문화재단은 미디어 아트 관련 국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인 홍콩 예술발전위원회가 광주지역 미디어 아

트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역 작가들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5년 창설된 홍콩 예술발전위원회는 홍콩 내 예술단체 및 예술가 재정지원,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등을 맡고 있는 정부 기구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이번 홍콩 예술발전위원회와의 교류 협정 체결로 일본 홋카이도문화재단과의 문화예술교류, 중국의 상하이민우회와의 인력 교환근무 등에 이어 국제 교류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30년 무대지기들의 또다른 '소풍'

극단 '광대의 꿈-소풍'
24~27일 공동예술극장

광주 대표 배우 박규상과 한중곤은 30년 넘게 무대를 지켜왔다. 슬픈 일도 즐거운 일도 많았고, 희열을 느낀 적도 있었다. 극단 '타'가 무대에 올리는 '광대의 꿈-소풍'(24~27일 오후 5시, 7시30분·사진) 광주 공동예술극장은 바로 그들의 이야기이자, 세상 모든 배우들이 이야기이기도 하다. "나는 연극무대에서도 등장인물이었고, 인생이라는 무대에서도 등장인물이었

다"고 회고하는 노배우의 삶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마지막 공연을 끝내고, 지나 온 삶을 더듬으며 추억에 잠긴 노배우, 무대를 바라보며 긴 여정의 끝자락을 마무리하려 할 때, 잊고 지냈던 후배가 극장을 방문한다. 어색한 만남에 잠시 망설이던 두 사람은 이내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토해내고, 점차 연극에 빠져들었던 20대의 청춘으로 돌아간다. 연극 속으로 돌아간 두 배우는 때로는 분노하고, 좌절하고, 웃고, 울고, 괴로워하며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노배우는 세상



에서의 소풍을 끝내고 또 다른 세상에서의 소풍을 꾸며며 노곤한 삶을 내려놓는다. 연출을 맡은 윤여송씨는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두 사람의 삶을 화려하고 극적인

상황 연출보다는 흑백사진같은 무대를 통해 보여주겠다는 복안이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234-2244. 010-4123-608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재단, 제 1기 온라인 서포터즈 모집

광주비엔날레재단이 SNS 등 뉴미디어로 시민 사회와 소통하고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 1기 온라인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온라인 서포터즈는 젊은이들이 함께 참여해 광주비엔날레를 SNS를 통해 알리고 UCC (User Created Contents) 제작 등을 하면서 예술로 소통하고자 기획됐다. 제 1기 온라인 서포터즈 모집 인원

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30명 내외이며 활동기간은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이다. 온라인 서포터즈가 되면 개인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주비엔날레 관련 소식을 게재하고 UCC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광주비엔날레 홍보 도우미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의 062-608-422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수익성 상가 매매

7층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1층 (커피숍 입점완료) 2~5층 (사우나, 주택) 6~7층 (설계사, 건설사)

월수익 950만 (1년 1억2천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1,800만
(보 2억, 용 6억) 매가 14억 5천

2층 상가 매매

〈나주 삼영동〉
(영산중고교,영강초교 정문앞)
1층 6칸 (올임대) 2층 2칸 (사무실,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보2천, 용 1억2천)
매가 2억 9천

3층 상가 매매

(수완동 4층중 3층)
월수익 180만
(보3천,용2억5천) 실투자금액 →1억
매가 3억 7천

010-7384-7800 / 010-6670-9800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매매(오피스텔)

- 상무지구 정영오피 3층(30평) 한국은행앞 (용5천(보1천, 월70만) → 매가 1억3천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점 (용4천(보5백, 월42만) → 매가 8천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점 (용5천(보1천, 월50만) → 매가 9천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점 (용2천(보3백, 월33만) → 매가 6천만
- 수완지구 3층상가(85평) 신한은행뒷면,모아A,P,T 6,000세대 앞 (용 2억5천(보3천, 월수익 180만) → 매가 3억8천만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45평) 울수리,전망좋은,임대완료 (용5천(보1천, 월60만) → 매가 1억1천만
-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전역1번출구 3분 (용2천(보3백, 월32만) → 매가 3억8천만
- 광산구 침단지구 월계동 상가1층(40평) (보8백, 월80만)(용4천) → 매가 1억5천만
- 광양 광영동 상아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보2백, 월25만) → 매가 4천만
- 전남장성 시골주택 매매 장성읍 2분! 장성읍 8분! (토지 160평) → 매가 4천5백만

법률경매

수익성상가(근린상가/구분상상가)

- 서구 치평동 (토15평,건90평)감정가 6억3천5백→최저가 4억4천
- 동구 금동 (토19평,건149평)감정가 5억1천→최저가 9천3백
- 동구 금동 (토18평,건 134평)감정가 4억7천6백→최저가 1억
- 서구 치평동 4층중3층(토 4.2평,건18.6평)감정가 2억9백→최저가9천3백
- 서구 치평동 (토30평,건56평)감정가 3억3천→최저가 1억8천(지하)
- 광산수원(토122평,건78평)감정가16억2천→최저가9억
- 북구신용동(토32평,건48평)감정가4억2백→최저가1억8천
- 서구 치평동 (토3평,건13평) 감정가 2억3천3백→ 최저가 1억6천3백

수익성상가(근린주택)

- 북구 두암동 (토60평,건154평)감정가74억→최저가2493cs
- 동구학동 (토138평,건545평)감정가 23억→16억

수익성상가(근린시설, 통근들)

- 북구 누문동(토305평,건238평)감정가 11억7천→8억2천
- 광산구 남산동(토258평,건150평)감정가4억8천→최저가 2억6천8백
- 북구 중흥동 (120평,530평)감정가13억7천→최저가 6억1천5백
- 동구 수기동 (토130평,건320평)감정가 1억7천→최저가 6억
- 서구 농성동 (토 86평,건263평)감정가 5억7천→최저가 4억
- 북구 각화동(토337평,건509평)감정가 22억3천→최저가 22억3천
- 광산구 쌍암동 (정례식당) (토 516평,건920평) 감정가 36억7천 → 최저가 29억

모텔/주유소

- 광산구 쌍암동(숙박시설)(토357평,건680평)감정가27억→최저가15억
- 광산구 쌍암동(숙박시설) (토154평,건419평)감정가 15억→최저가 8억4천
- 북구 두암동(주유소) (토204평,건114평) 감정가 11억9천→최저가 11억 9천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매매,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경매컨설팅 교육

062-382-5500/010-6832-9700